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부활 제6주일

2021. 05. 09. (나해) 제2267호

대구주보



복현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사도 10,25-26,34-35,44-48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2독서** 1요한 4,7-1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5,9-17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예수님의 친구



효성초등학교 교장 | 박비오 비오 신부

우리 사회는 '사소한 차이에 집착하여 갑질하는 사회'처럼 보입니다. 갑과 을은 계약을 맺을 때 사용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만, 부탁받은 사람과 부탁하는 사람의 관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갑질한다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갑질한다고, 손님이 상인에게 갑질한다고 규탄하지요. 그런데 갑은 을에게 갑질하고, 을은 병에게 을질하고, 병은 무에게 병질합니다. 사소한 차이에 집착하여 갑질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보다 큰 자가 보다 작은 자에게 머리 숙이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거만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요.

삶이 온통 모순덩어리로 여겨질 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불기둥'을 떠올렸으면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칠혹 같은 어둠을 밝히며 그들을 자유의 길로 이끌었던 것은 '불기둥'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6주간 제대결을 지키고 있는 부활초가 바로 그 불기둥이지요. 부활초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부활초는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키를 낮추며 어둠을 밝히는 부활초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추면서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시선을 낮추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작은 것 안에 깃든 '하느님의 선물'을 발견할 줄 아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요한 15,13-14) 

타마르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타마르는 유다의 며느리다. 타마르는 시아버지 유다의 뜻에 따라 유다의 맏아들, 에르와 결혼했지만 일찍 사별한다. 타마르는 유다의 다른 아들, 오난과 결혼하지만 오난 역시 일찍 죽는다. 에르는 악하였고 오난은 형의 자손을 잇는 것을 거부한 탓에 주님이 죽이셨다고 성경은 전한다(창세 38,7,9-10 참조). 유다의 율법은 형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 또 다른 형제가 후손을 보기 위해 형수와 결혼해야 했다. 한 집안의 여인들은 어쩌면 ‘씨받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유다에게는 셀라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유다는 과부가 된 타마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자신에게 남은 아들, 셀라가 타마르를 만나 또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예전, ‘여자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불쌍사나운 남자 사람들의 비겁한 말이 있었다. 대개 집안의 우환을 집안 여인들에게 덮어씌우는 장치로 사용된 말이었다. 아들을 못 낳거나, 집안의 가세가 기울 때 여지없이 등장한 것이 며느리를 잘못 두었다는 말이었다. 집안이 잘되면 제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게 ‘시댁 식구들이었다.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들의 욕망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규정되고 정리되며 버려졌던 시대가 있었다. 물론 그 시대의 연장선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인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유다는 자신의 아내와 사별한 뒤, 팀나로 양의 털을 깎으러 떠난다. 때는 봄이었고 양털 깎는 축제의 때였고, 그때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때였다. 시아버지의 두려움 때문에 버려진 타마르는 시아버지 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창녀로서 나타난다. 유다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한 채 한자리에 들었고, 유다는 부지불식간에 며느리를 통해 자신의 아들을 얻고야 만다.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이고, 있어선 안되는 일이지만 성경은 그 어떤 윤리적 심판을 전하지 않는다.

타마르는 정확히 유다의 비겁함 안에 숨겨진 남자의 욕망을 겨냥했다. 타마르는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

고, 그 속임수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창녀로 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의 비겁함과 나아가 남자들 위주의 관습 한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내어던졌다.

타마르는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자신과 관계한 증표로 인장과 줄, 지팡이를 건네받았고 그 증표를 통해 유다를 두려움과 비겁함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인장과 줄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창세 38,25). ‘살펴보다’라는 동사 ‘나카르’는 ‘인정하다’, ‘깨닫다’의 의미를 지닌다. 유다는 그 증표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부끄러워했으며 결국 이렇게 고백한다.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창세 38,26).

창세 38장의 타마르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의 한가운데 위치한다. 요셉이 형제들의 질투와 욕심 탓에 이집트로 팔려간 이야기와 요셉이 포티파르의 종으로 그의 아내에게 유혹당하는 이야기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인간의 질투와 욕망 사이에서 창세 38장의 타마르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름’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바름이란 윤리와 규범의 수동적 준수에 있지 않다. 부조리한 사회적 관습 뒤편에 숨죽이는 모든 비루함과 비겁함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용기와 노력이 올바름을 견지하고 지켜낸다. 시편은 타마르를 의인으로 묘사한다(시편 92,13에 야자나무(종려나무)는 의로움을 상징하는데, 타마르라는 이름의 뜻이 야자나무(종려나무)다). 그 타마르의 이름이 죄인의 자리에서 의로움과 구원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다(마태 1,3 참조). 타마르 이야기는 유다의 성찰과 회개의 이야기고 타마르는 오늘 나의 비겁함과 비루함에 올바른 깨우치는 따가운 회초리다. **필문**

신앙인을 위한 배움터 가톨릭신학원을 소개합니다

대구가톨릭신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속해 있는 저희 가톨릭신학원은 교회의 신학과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분야별로 특화된 강사진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는, 신앙인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인문학적 가치들 속에 신앙의 의미와 삶에 대한 사유, 질문에 함께 다가설 많은 신앙인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신앙인들을 위한 삶의 자양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진 성경과 그 성경의 가치를 시대에 맞춰 새롭게 해석하고 나누고자 하는 신학의 노력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보다 명쾌히 정리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해를 살아가는 대구대교구의 모든 신앙인 여러분들께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의 문은 늘 활짝 열려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신앙의 참된 가치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필문**

성경입문과정	구약성경입문		신약성경입문	
구약성경과정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편과 지혜문학
신약성경과정	공관사도	사도바오로	가톨릭서간	요한계문헌
신학일반과정				
교리교수법	그리스도론	교회법	교회론	교회사
마리아론	성사론	신론	윤리신학	영성신학
전례	철학	신학입문	구약성경입문	신약성경입문



한정흠(韓正欽) 스타니슬라오는 전라도 김제의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훗날 전주에 살던 먼 친척인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의 집으로 가서 그 자녀들의 스승이 되었다. 그가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된 것도 바로 유항검 때문이었다.

유항검으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하게 된 스타니슬라오는 기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여 열심히 실천해 나갔다. 그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그리고 훗날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전주를 방문하였을 때 그로부터 성사를 받기도 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지 얼마 안되어 스타니슬라오는 유항검과 함께 그 해 3월에 체포되었다. 전주 감영으로 끌려간 그는 여러 차례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조금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는 열심히 신자 김천애 안드레이와 최여겸 마티아를 동료로 맞이하게 되었다.

한정흠 스타니슬라오와 동료들은 그 후 한양으로 압송되어 문초를 받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자 형조에서는 1801년 8월 21일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각각 고향으로 보내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따라 스타니슬라오는 고향인 김제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곳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1년 8월 26일(음력 7월 18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형조에서 스타니슬라오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한정흠은 제사를 폐지하였으며, 천당으로 일찍 가지 못한 것을 오히려 한탄하였다. 그는 죽음을 삶처럼 보았고, 그릇된 도리로 많은 이를 유혹하였다. 그러니 죽음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이단을 배척한다고 형벌을 가하거나 죽이면서까지 금지시켰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방자하게 발악한 죄는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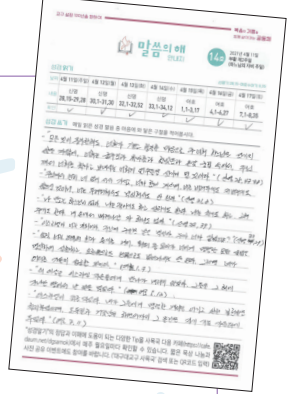


한정흠 스타니슬라오
(1756 ~ 1801년)



말씀의 해
안내지

모세오경 이벤트



선택 하나, 온라인 참여

1. 1호~14호(모세오경 전체) 성경쓰기 부분 사진 찍기!
2. 아래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보내기!
 - ① 본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게시
(필수 해시태그 #천주교대구대교구 #말씀의해안내지 #모세오경)
 - ② 사진과 함께 개인정보(이름/세례명/본당/휴대폰번호)를
이메일 dgsamok@daum.net 또는
카카오톡 1:1 오픈채팅(QR코드 검색)
중 하나로 발송



선택 둘, 오프라인 참여

1호~14호를 우편으로 보내기!
(5월 14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말씀의 해 안내지는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소: (4196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대구대교구청 사목국

- 참여기간 2021년 5월 15일(토)까지
- 당첨자발표 5월 21일(금)
- 문의 사목국 053)250-3053

*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 후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모든 중복 참여(온, 오프라인)는 불가하며, 중복 참여 시 당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말씀에 비추어 보기 6

성경의 첫 장부터 노동은 인간 존엄을 위한 중요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땅을 일구고 피조물의 힘을 이용하여 “고난의 빵”(시편 127[126],2)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키워 나갑니다. 또한 노동을 통하여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가정은 생계를 유지하며 안정과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과 고용 불안으로 야기되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기회의 부족은 가정생활의 안정에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폭군과 같은 자세로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며 이기적이고 심지어 잔인한 방법으로 자연을 착취한 죄로 야기된 사회악을 가법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지구의 사막화(창세 3,17-19 참조)와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을 야기합니다. (『사랑의 기쁨』 23-26항)



사랑이란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10일(월) 10:30 범어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5월 11일(화) 11:30 계산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10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5월 12일(수) 10:00 평화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5월 10일(월) 11:00 황성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15일(토) 11: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10일(월) 11:00 신평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5월 15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10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샬레시오수도회 성소 상담

대상: 고3~일반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5.15(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5.18(화)~19(수)
시니어 피정: 5.25(화)~26(수)
문의: (054)382-0091

해독, 효소단식 성경통독 피정

일시: 5.20(목)~23(일)
장소: 성모솔숲마을(청도)
지도: 박상호 신부
문의: (054)373-3955 / (010)6630-3816

바틀로교육센터 개인 피정

매주 목, 토요일 만나질 혹은 1일
신청, 예약받습니다.
문의: 783-9817 / (010)2889-3342
www.happysister.net/vatelot.php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일시: 6.11(금)~13(일) 2박 3일
장소: 베네딕도영성관(대구시 사수동)
주제: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마감: 6.3(목)
문의: 한국CLC, (02)333-9898(월~금)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하반기 원고 모집

주제 및 내용 | 입교, 선교와 같은 기존 신앙 체험 내용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
일상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한 소소한 이야기

형식 및 분량 | 수필형식의 글로 분량은 한글 12포인트 크기 A4 1페이지(분량 준수)

기간 및 방법 | 2021년 6월 11일(금)까지 / 대구주보 이메일 jubo@dgca.or.kr 또는 방문 접수
(매월 대구주보 4면에 게재될 예정이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점은 교구 문화홍보국 주보담당 053)250-304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 안과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를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드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달서점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 앞 ☎053-959-7175
010-9597-7175

헬스텍피아 보청기
HEALTHTECHPIA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 무료보청기적합 ◆ 청력재활프로그램
- ◆ 고성능, 최신품, 고음질 보청기

053)961-2525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 영상의학 · MRI, CT, 초음파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홀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행사 | 모임

5월 예비신학생 모임(중1~고2)

일시: 5.16(일) 14:00

1~5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기획전시 개최

故 박형진 신부 기증유물 특별전
신부님의 선물展

일시: 5.14(금)~2022.2.28(월)

장소: 역사·박물관 김조자 기획전시실

문의: 학예연구실, 850-3283~4

교육 | 모집

6월 카나혼인강좌

일시: 6.13(일) 10:00~13:30(시간엄수)

장소: 교구청 내 다동 대강당

참가비: 2인 3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6.3(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2021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5.3(월)~14(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성경 통독

일시: 매주 수 10:30~16:00(미사 15: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차량: 지하철 1호선 설화명곡역 2번 9:40

준비물: 성경 / 문의: (010)9045-0191

바오로딸 영성프로그램

5월 신앙아카데미_성요셉의 해 특강

일시: 5.15(토) 15:00 / 강사: 이재근 신부

마음돌봄 북클럽: 5.28(금) 10:30, 5주

기도훈련4기: 6.2(수)10:30, 8주

문의: (010)6681-5185 사전예약

남대영기념관 여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강점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35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7.17(토)~8.14(토) 4주

설명회: 5.22(토) 14:00

대상: 초등 3학년~중등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가족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서준영(라파엘) 신부, 650-3529

채용 | 안내

교구청 사제관 주방 직원 채용

자격: 55세 이상 신자

서류: 자필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마감: 5.13(목) 12:00

문의: (010)4926-3224

대구가톨릭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58세 이하

문의: 616-2141 / 615-2141

감천리 묘지 분묘 신고 및 이장 안내

학산공원 개발사업에 따라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소재 「감천리묘지」

분묘 연고자는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 및 이장 협의 바랍니다.

문의: 대구도시공사 공원조성사업단,

350-0342~7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기철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

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 경 임 (아 네 스)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중 순(요한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HS

익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우리 부모님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면!

인지 재활 중점 마더요양원

MOTHER SANATORIUM

원장 박 동 군(마르첼리노)
이사 이 현 숙(레 지 나)

경산시 강변동로
112 경산역 앞 T. 053)815-9988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저온창고·고추건조기

할부가능(12개월, 24개월)
김원(토마스) 010-5623-9001